ELIO'S LITTLE DISCOVERIES

What Should We Build?

무엇을 지을까? · 보폭과 걸음 수



11세 · Day 037 · 함께 읽기 · 4장면



The corner beside Tam’s gate had been empty ever since the old shed fell down. Weeds grew there, and the ground stayed wet for days after rain.



Elio wanted a sandbox for digging. Bori wanted a low stage for her puppet shows. Tam wanted room for more cabbages, and Mum wanted a bench in the shade.



They stood at the edge and looked. The lot was small, the path ran along one side, and the oak threw shade over the far half of the ground.



“Six of my steps across,” said Elio. “Nine of mine,” said Bori. They looked down at their own feet, then at each other’s feet, and laughed.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빈터와 돌 표시를 봐요. 우리 동네에 작은 놀이터를 만든다면 무엇을 두고 싶은지 물어봐요.

함께 읽을 때

엘리오의 여섯 걸음과 보리의 아홉 걸음이 왜 다른지 그림에서 확인해요.

생각 나누기

무대를 포기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보리와 엘리오가 마지막에 무엇을 얻었는지 찾아봐요.

생활에서

집 안의 작은 공간을 걸음으로 재어 보고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려 봐요. 자로 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